

현 불 뉴스

직능종회의원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는 5월29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를 열고 결원된 직능직 종회의원으로 원학(해안사 관할암암주), 법안(금전사 주지)스님을 선출했다.

유해환경 감시 서명

'우리의 자녀 우리가 지키자'라는 주제로 5월29일 동인천에서 실시된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평화 캠페인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숙박업협회, 한국야외배치운동본부 등을 비롯 청소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제5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철도노동자였던 김상환씨를 선정하고, 오는 17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인권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환경의식 고취 세미나

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모주)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LCI 프라자 2층에서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전(서울대)교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소비생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여고 풍물팀 대상

(사)대한불교청년회와 연화회(회장 현성)가 5월26일 동국대 중앙관에서 개최한 제9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에서 명성여고 풍물팀이 대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했다.

대불청문화단 가두발표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김규범)는 지난 1일 대학로에서 문화단 가두발표회를 개최했다. 간단한 시민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는 풍물 길놀이로 시작으로 노래공연, 율동 및 레크레이션, 사물놀이 등이 차례를 펼쳐졌다.

종태스님 추모식을 제막

실천승가회(공동회장 청화·지선)는 지난 5일 파주 보광사에서 종태스님 추모식을 제막식을 가졌다.

봉은사 고층건물 몸살 '심각'

ASEM 행사장 40층 3棟 일주문 '코앞에'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많은 성보문화재가 남아있는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가 고층빌딩 신축으로 전통사찰의 면모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오는 2000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지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봉은사 앞 무역센터 전시장에 대형건물 4개동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셈을 유치한 무역협회에 따르면 객실 8백개의 40층 특급호텔과 4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 2개동, 5층규모의 컨벤션 센터 1개동을 내년 4월에 착공, 99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것.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장소는 봉은사 앞 도로(왕복 6차선)길

너편으로 전통도량 봉은사를 비롯 봉은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도심의 녹지가 최소한 1백m 높이의 건물숲에 둘러싸여 훼손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이 자리는 조선 명종때(1552년) 부활된 승과공사를 실시한 '승과공(僧科功)'으로 70년대 강남개발 당시 봉은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무역협회가 봉은사를 수용했으나 봉은사와 협의 없이 아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년전 서울민사지법이 봉은사 옆에 건립중인 19층규모의 대형빌딩과 관련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봉은사는 사찰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건축 중지를 금지, 최초의 문화환경보호조치라는 선례를

남겨 아셈유치단의 대형건물 건축여부가 주목된다.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은 '아셈이 국제적 행사라는 미명아래 자칫 전통문화공간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며 '숙소와 행사장'을 위해 40층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5층 규모의 본 행사장인 컨벤션 센터와 같이

저층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는 자체적으로 아셈행사장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행정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단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업 기자)



강남 봉은사 길 건너편에 1백m 높이의 고층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인 아셈 행사장 조감도.

'이웃을 돕는 사람들' 14일 창립

기아·빈민구호등 지구촌 자비 실천

기아 질병 아동 구제기금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창립한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자비의 집, 외국인노동자마음이 구성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하루 3만2천명, 일년에 1천3백만명의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 세계적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범불교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들의 계속적인 동참이 기대된다. 02)980-5120~1

조계종 121회 총회

18일부터 5일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경)는 제121회 임시중앙총회를 오는 18일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종가특별해제 등 각 상임분과위 보고에 이어 총무원이 제안한 중점제·개정안을 논의한다.

총무원이 제안한 중점제·법은 사찰부동산관리(제) 중무원(제) 문화재관리(제) 사찰사면법(제) 사찰사당등록관리(제) 산중종회법(제) 분담금납부관련법(제) 승려법(제) 등 8개 법안이다.

해외포교 30년 기념법회

20일 힐튼호텔 30여국 300여 스님 한자리에

해외에서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스님들을 위로하고 향후 체계적인 국제포교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불교 해외포교 30년 기념법회'가 오는 20일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이 초창대 한자리에 모인다. 총무원에 이날 해외포교에 공로가 많은 승산스님(화계사 조실)에게 공로패, 해외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의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 초창대 한자리에 모인다. 총무원에 이날 해외포교에 공로가 많은 승산스님(화계사 조실)에게 공로패, 해외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의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유방암사망 신속회식

각막·시신 병원기증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정)는 지난 1일 유방암으로 사망한 불자 신숙희씨(88)에게서 각막과 시신기증을 의뢰받고, 고려대병원에 각각 시신을 기증했다.

요구 관철때까지 농성 계획

중앙승가대 학생회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원철)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제반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퇴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총무원에 항의방문, 농성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및 도량정비 △등록금의 전액

총비 지원 △학교법인인 독립성 자주성 보장 △총무원장의 이사장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중점개정 △중단의 교육체계 일원화를 통한 교육재원의 우선지원 △이사의 공과사과 등 9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사이전 즉각이행 △학장 선임 철회 △학사이전금의 차질없는 집행 및 학교자산 마련 △연 인양불사 마무리

승가대학원 9월 개강

조계종 설치령 확정... 교수등 전문인력 육성

승가교육의 교수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승가대학원(원장 원산)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4일 교육원회의실에서 교육원회의를 갖고 학제를 연구 과정과 전문과정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승가대학원 설치령(안)을 최종 확정하고 계획안을 수립했다.

(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진과 교육을 깊이 있게 연구해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승가교육의 교수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입학자격으로 연구과정(수업연한 2년)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니), 전문과정(수업연한 3년)은 승랍 10년 이상의 비구(니)로서 학림졸업자,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이수자,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사립 중경경력 2년 이상자, 강원과 중앙승가대 또는 강원과 동국대 불교대학을 모두 졸업한 자로 규정했다. 교육원이 확정된 승가대학원 설치령은 이달 중순경 총무원회의를 통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전국사암서 순국선열 넋 위로

현충일 맞아 수륙무차대회등 봉행

지난 8일 41불 현충일을 맞아 전국의 각 사암에서는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등 국립묘지·충혼탑을 참배, 순국선열들을 추모했다. (관련기사 1·4면)

원도 월정사는 호국영령을 위

한 천도법회를 지냈으며 승가는 무명용사충혼탑을 찾아 천도법회를 치루는 등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법타스님 새 주지

은혜사 산중총회서 선출

연화 무료 합동결혼식

다. 전 주지 일타스님의 사표제출로 열린 이날 산중총회에는 60여명의 재직자들이 참석했다.

연화 무료 합동결혼식

태고종 한국불교사회복지회(회장 설산)는 지난 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사정상 식을 못본 10쌍의 연화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전주서 첫 청정운동 실천대회

사부대중 2천여명 동참 '열기'

전주지역 '청정운동 실천대회'가 지난 9일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오계정신의 확대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참가자들은 "종교는 권위와 세력을 위한 집단이 기심으로 갈등의 불길이 광배하고 있으며 정치는 권모술수로 불신과 오욕으로 얼룩져 있다"며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WFB 한국대회 '예정대로'

11월 1~10일 서울·경주...재원 불투명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0차 한국대회가 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0차 한국대회가 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

20차 한국대회가 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다.

국제서 개최기로 최종 확인했다

고 이사회 결과를 밝혔다. 한국대회 개최는 지난해 6월 WFB이사회에서 결정됐으나 한 국본부 대회장의 돌연한 사퇴와 1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다.

세계평화회의'란 주제로 한

국제서 개최기로 최종 확인했다. 한국대회 개최는 지난해 6월 WFB이사회에서 결정됐으나 한 국본부 대회장의 돌연한 사퇴와 1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다.

박동기회장은 "교구본사 주

지를 역임한 중진스님이 대회장을 맡기로 했다"며 "20일경 서울 신문로에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열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회장을 수락했다고 밝힌 스님쪽에서는 "대회장 수락을 검토중이다. 향후 조계종에서 의 역할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박동기회장은 "후원기업체를 거의 확보한 상태"라고만 밝혔다. 아직까지도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Advertisement for '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featuring various health produc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참나 청소년 통일문화·예술대전 입상자 명단' listing winners of a youth cultural and art competition.

Advertisement for '대중 불교 6월호' featuring a list of authors and topics for a Buddhist magazine.